



해맞이 소공원



오륙도스카이워크

12mm 유리판 4장에 방탄 필름을 붙여 특수 제작한 두께 55.49mm의 고하중 방탄유리로 안전하게 설계했다. 길이 15m에 이르는 다리에서 투명한 유리 아래를 내려다보면 푸른 오륙도 바다와 암벽으로 세차게 치는 파도를 생생하게 볼 수 있다. 날씨가 맑으면 대마도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절경 오륙도

오륙도는 동쪽에서는 섬이 6개, 서쪽에서는 5개로 보인다고 해 이름을 붙였다. 바람과 파도를 막아주는 방패섬, 소나무가 자생하는 솔섬, 독수리가 모여드는 수리섬, 작고 뾰족한 송곳섬, 동굴이 있는 굴섬, 등대가 있는 등대섬 등으로 이뤄져 있다. 수많은 해양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해양 보호 구역인 오륙도는 2007년 10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24호로 지정됐다.

국내 제1호 트램 ‘오륙도 노선’ 부산 남구를 이야기하다

미래형 도시 철도인 무가선 저상 트램은 기존 노면 전차와 달리 대용량 배터리를 주동력으로 사용한다. 국내 트램 제1호인 ‘오륙도 노선’은 도시 철도 2호선 경성대·부경대 역에서 출발해 용호동 오륙도까지 총 길이 5.15km를 운행할 예정이다. 트램 로드는 오륙도 노선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새해에는 남구에서 선보이는 모바일 스탬프 투어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

일출을 한눈에...오륙도 해맞이소공원

해파랑길의 시작 지점인 오륙도 해맞이소공원은 오륙도의 아름다운 일출을 감상할 수 있으면서도 봄이면 수선화와 유채꽃 등 각양각색의 꽃들이 언덕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명소다. 이곳에서 출발해 동생말까지 이르는 약 5km의 이기대 해파랑길은 명품 둘레길로 알려져 있다.

파도 위를 걷다...오륙도 스카이워크

오륙도스카이워크는 동해와 남해의 경계 지점인 승두말 위에 세워져 있다. 바다 위 하늘을 걷는 듯한 아찔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이 다리는 35m 해안 절벽 위에 철제빔을 설치하고 그 위에 유리판 24개를 말발굽형으로 이어놓았다.

어디에서 5개로 보인다고 해 이름을 붙였다. 바람과 파도를 막아주는 방패섬, 소나무가 자생하는 솔섬, 독수리가 모여드는 수리섬, 작고 뾰족한 송곳섬, 동굴이 있는 굴섬, 등대가 있는 등대섬 등으로 이뤄져 있다.

갈맷길 따라 걷다 만나는 곳 ‘이기대 어울마당’

잘그락잘그락, 자갈 밟는 소리가 즐거운 이기대 어울마당. 영화 ‘해운대’의 촬영 장소로도 유명한 이곳은 들어서자마자 시원하게 펼쳐진 수평선과 광안대교의 멋들어진 광경을 만날 수 있어 바라보고 있노라면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일상의 숨은 발견 남구 ‘문화 골목’

해가 지고 나면 은은한 불빛으로 물드는 자그만 골목 세상이 있다. 형형색색의 간판들이 즐비한 대학가 풍경과 사뭇 다른 힐링 숲 ‘문화 골목’을 발걸음을 이끈다. 건축가인 최윤식 대표가 부산에 문화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대학 시절의 꿈을 결국 실현해 조성했다. 도시에 감성을 물들이는 이 테마 골목은 2008년 ‘부산 다운 건축상’을 수상했다. ①

대한민국 1호 트램도시 남구가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기원합니다!

오륙도선 트램 타고! 2030 부산월드엑스포로!



대한민국 제1호 친환경 무가선 저상트램 ‘오륙도선’

- 지역경제 활성화
- 친환경 동력사용
- 교통체증 해결
- 편리한 환승
- 역세권 도심개발

WORLD EXPO 2030 BUSAN KOREA

개최장소 부산시 북항 일원
참가규모 약 200개국, 관람객 5,050만명
사업규모 박람회장 조성 266m²
파급효과 생산유발 43조원, 부가가치 18조원, 취업유발 50만명

트램 실증노선 개요

길이 1.9km
노선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이기대 어귀 삼거리
정거장 5개소



평화국가 미래다 사람이 희망이다
새로운 백년의 비전 세계평화특구 남구